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주께서 이루신 감격의 역사 (느 6:15-19)

The Dramatic Work that The Lord achieved (Neh 6:15-19)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간, 순간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박노철 목사

During the rebuilding of the walls of Jerusalem, Nehemiah spent his difficult time. However, in the midst of the difficult time, God, at every moment, answered his prayers and gave a path to go.

1. 환란은 승리의 속도를 가속시킨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감히 그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음모와 많은 환란을 무릅쓰고 52일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한 요인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수들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역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더욱 멀리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1. The difficulties accelerate the speed of success
After the collapse of the wall of Jerusalem, there was no one who dared to meddle in the affairs of rebuilding the walls for 75 years. However, despite the enemy's endless threat, conspiracy, and many difficulties, Nehemiah completed the greatest work of rebuilding the walls in 52 days. Like this, the very length of time, one of the elements in rebuilding the walls, was ironically actually because of the enemies of Sanballat and Tobiah. Nehemiah, owing to them, never lost the strings of tension to bring focus in accomplishment. Because of them, he had to finish his work.

Isn't there anyone who is in difficulties? By afflictions I am sure that fragrance of Jesus will fly and be strengthened to travel to farther places.

2. 역사를 완성한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또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느 6:17).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는 본래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은밀하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못이기는척 따라가긴 했지만 자신들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도비아는 원래부터 느헤미야를 못 죽여서 안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 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 곧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2. He never lowered his vigilance after completing the work
As "Also in those days the nobles of Judah were sending many letters to Tobiah, and replies from Tobiah kept coming to them"(Ne 6:17).

The nobles of Judah and Tobiah were not familiar with each other, but now they secretly gave and received their letters reciprocally. Though the nobles of Judah tightly followed Nehemiah, they unpleasantly thought about the loss of money. Meanwhile, Tobiah was a kind of man who was originally anxious not to kill Nehemiah. However, they became partners to defeat Nehemiah. As Pilate and Herod were mutual enemies, so they became friends to each other to kill Jesus Christ, that is to say, to help in the evil that was done.

Since Tobiah also had a marriage of convenience with the daughter of a powerful family, he put on tacit pressure to Nehemiah(v.18). Moreover, the nobles of Judah spoke to Tobiah, who had been an enemy in the past, about him performing good deeds. If they need to have their own way in something, they can in a moment transform their enemies into friends.

3.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신다

느헤미야가 오직 앞만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이며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보다 더 아름답고 크게 사용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신 분이지만 정작 자신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고 고백합니다.

3. God works in person
The fact that Nehemiah only looked straight ahead and strived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was because God gave him a clear sense of mission, the fact that the people worked hard was because God bound their hearts into one,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defeated the enemy's attack was because God did it. There was no one except Paul who preached the Gospel to all the nations and was used more wonderfully and greatly than him. Although he devoted himself and sacrificed himself in order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to do his best, he confessed,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 harder than all of them—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1 Cor 15: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You must confess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1 Cor 15:10). In the midst of afflictions, looking straight ahead into God's work,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win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11기 단기선교팀 파송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8월1일(월)-9일(화) / 방글라데시 다카

제11기 단기선교팀(지도: 박종민 목사 단장: 이강진1 집사)이 8월1일(월)부터 9일(화)까지 방글라데시 다카로 파송된다. 제11기 단기선교팀은 총 28명으로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슬람이 85%이상인 방글라데시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 중에 모든 활동을 준비해왔다.



방글라데시는 조남혜 선교사의 어린이 중심의 선교와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의 의료선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로이 목사가 다카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단기선교팀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도와 9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에 힘쓸 선교사들과 단기선교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11기 단기선교팀원은 다음과 같다.

- 지도 : 박종민 목사
- 단 장 : 이강진1 집사
- 단원 : 양정실 권사 하영숙 집사 윤형준 집사 김영주 집사 김영옥 권사 김필임 집사 안해옥 집사 김성환 성도 임형빈 성도 김예지 성도 채호승 성도 황슬애 성도 최근우 성도 박건희 성도 박유란 성도 정진영 성도 박지원 성도 전미경 성도 전미정 성도 정아영1 성도
- 의료 : 박경정 집사 정현구 집사 이지동 집사 민효영 집사 이선우2 성도 문경덕 집사

201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 8월7일(주일) 오후4시,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장학금 수여식 : 8월7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란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54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로 총 5,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입금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때 단정한 복장 또는 정장으로 통일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송암 장학생 - 20명**
강윤희2 김소연8 김소현1 김수지 김승직 김연진1 박나에 박세아 박승기 박주리 방승찬 송호연 신혜진2 유신희 이대환 이민주3 이실비아 이아람 이영호2 정다운2
- 2. 일반장학생**
<대학생>-18명
권보화 권소현 김상운 김한별 박선혜 박유란 신미령 이누리 이윤지 이한나 임아름 임주현 임혜준 채호승 한민아 한성재 홍하림 황나리
<디아스포라부>-10명
김영애1 김일순2 김향미1 박춘희 백요셉 양리인 양진희 이영화1 이현서 전경희1
<선교사자녀>-3명 : 김하은 이혜나 정에스터
<호산나전문대학>-3명
· 이사장 장학금 : 고경희 · 학장 장학금 : 김재욱
· 부학장 장학금 : 노성준

폭우 피해지역을 위한 봉사의 날

8월2일(화) 오후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

이번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어 우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다가가고자 한다.

폭우 피해지역을 위한 봉사는 8월 2일(화) 오후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토사에 더러워져도 되는 간편한 복장, 그리고 장화와 고무장갑, 간편한 청소 도구

를 준비하면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차량과 식사 준비를 위해 정확한 참석 인원 파악이 필요하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1층 사무국과 2층 로비, 그리고 8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참석 신청 용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3]

(문 11)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You shall be as gods, KJV.)고 말하였습니다.(창 3:5) 그리고 22절에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us)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일신 사상과 다른 것입니까?

(답)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칭호는 이방 신을 말할 때도 가끔 사용되기도 한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엘로힘은 복수명사로 왕의 위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아도님, 베아림과 같이 권위를 나타내는 복수형인 것입니다. 이 복수명사는 형용사 단수로 수식되거나 단수동사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복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대변자로 활동한 뱀도 3장1절에서는 참 하나님 엘로힘을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물론 ASV, NASV, NIV 그리고 루터 성경까지도 그리고 한글 성경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will be like Go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한 말씀은 삼위 하나님(창 1:26)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 서있는 천사들을 언급한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왕상 22:19, 사 6:1-3)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시 97:7). 하늘의 천사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 사단의 지도하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12-15에서는 사단이 바벨론 왕의 보호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후 2:4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남아 있는 천사들은 시험에서 그 신실성과 순종성에서 통과된 이들로서 여기서 '우리 중'에는 천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단기선교팀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박종민 목사(단기선교팀 지도)

깨문 아젠~(안녕하세요?)

제 11기 단기선교팀이 구성된 것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조남혜 선교사님과 박진영 선교사님, 김미성 선교사님, 바로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복음 전파를 통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의료팀, 이미용팀, 아동사역팀으로 사역을 나누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방글라데시의 문화와 언어 등 필요한 정보들을 공부하며,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과 재정적인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고, 바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물품과 시간과 헌금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도움을 주신 분들로 인해 넉넉함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선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과 격려, 그리고 더 할 수 없는 크신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에 담아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는 8월 1일 오후 3:50 출국하여, 2일에는 묵따가 차로 이동하여 3일까지 거기서 의료, 이미용,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4일부터 5일까지는 바로이 목사가 섬기시는 곳에서 의료, 이미용,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며, 6일은 소망호스텔에서 여성성경학교 행사와 이미용 사역을 하게 됩니다. 7일에는 성경학교를 계속하게 되며, 8일에는 소망공부방에서 이미용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일 02시에 다카에서 출국하여 오후 2시 경 도착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는 88년 회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로서 회교도가 83%, 힌두교가 16%로 전체 99%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며, 저희가 주로 사역할 수도 다카는 세계 도시 중 가장 살기 힘든 2위 도시로 선정된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8월은 우기로서 전 국토의 80%가 침수될 정도로 강물의 위험이 큰 곳이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많은 질병의 위험도 도사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라마단 기간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곳입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

기도해주세요!

1.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단기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2. 방글라데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늘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3. 방글라데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온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우상과 거짓을 버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4. 현지 선교사인 조남혜 선교사님,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님,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단기선교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5. 단기선교사들이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쉽고 습한 날씨와 사역의 피곤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6.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亨통하게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필요한 일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7. 풍토병 등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여 강건하며, 항공기와 현지 교통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8. 준비한 선교프로그램들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 모든 사역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9. 라마단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의 미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0. 방글라데시를 불쌍히 여기사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니다. 계획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단기선교팀

주님이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지중 집사(교구)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란 주제로 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1

년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한채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과거 2년동안 캄보디아와 말라위 선교때 받은 은혜가 많이 있고, 또한 은혜의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이번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후에는 세상적인 유혹과 쉬고 싶은 게으름으로 한차례 반복한후에 믿음이 없음을 회개한후 주님의 부름심에 응답인줄 알고, 순종함으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르시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그곳에 순종하는 것임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이슬람교도가 99%이며,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미혼모와 가난과 굶주림과 공핍과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으며, 이들의 영혼의 가난과 죽음의 세력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자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료선교를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있을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선교팀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기쁨과 흥분에 쌓여있습니다. 비록 무더위와 라마단기간이란 위험과 예상치 못한 위기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몰려오고, 좌절과 절망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구일뿐 주님이 친히 치유하고, 간



캄보디아에서 의료선교

섭하고 방글라데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것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내 자신의 자아의 인일만 보고, 나의 공핍함과 곤란과 어려움만 보면서 살다가 도리어 선교팀원들이 자극을 받아 영적인 거목들로 거듭나게 될것인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거대한 일들이 기대가 되며, 오직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가 됩니다. 돌아오는 선교후에는 승전가를 부르며, 아무 사고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넘칠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신 모든 서울 교회 성도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합니다-디아스포라부 수련회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



이인숙 권사(디아스포라부 차장)

안녕!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울교회 모든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며 이제 곧 진행되게 될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우리 서울교회 목회지침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디아스포라부

역시 교회 목회지침에 맞게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가 새로운 부흥을 부서 사역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박광일 목사님의 지도 아래 기도로 이번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알찬 프로그램들이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을 수련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님과 박광일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집회,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8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진행되게 될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에 많은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알찬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서울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광지승 성도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독주로 "드러지게 하소서(김기영)"를 연주하고, 플루트와 바순, 피아노의 3중주로 "참 좋은신 주님(김기영)"등 두곡을 연주한다. 광지승 성도는 미국 내셔널 플루트협회 콩쿨에서 최연소1위를 한 바 있으며, 바순연주자인 오형원 학생은 서울대 재학중 도미 유학하여 현재 줄리어드 음대재학생이다. 피아노는 가브리엘찬양대 피아니스트인 박승기 성도가 담당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광지승 성도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독주로 "드러지게 하소서(김기영)"를 연주하고, 플루트와 바순, 피아노의 3중주로 "참 좋은신 주님(김기영)"등 두곡을 연주한다. 광지승 성도는 미국 내셔널 플루트협회 콩쿨에서 최연소1위를 한 바 있으며, 바순연주자인 오형원 학생은 서울대 재학중 도미 유학하여 현재 줄리어드 음대재학생이다. 피아노는 가브리엘찬양대 피아니스트인 박승기 성도가 담당한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은혜중에 진행된 에바디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 여름수련회에서 강의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 31일(주) 한양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8월 6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사임 : 2007년부터 부목사로 서울교회를 섬기던 노현상 목사는 오늘(31일)부로 사임하였다.
- 득남 : 13교구 조남현 집사 서지연 성도(조정식 장로 김영식 권사 손자)
- 교역자 휴가 : 황광 목사 8월3일(수)-9일(화) 주일제의 대행: 장석남 목사
 한상은 목사 8월3일(수)-9일(화) 주일제의 대행: 박종민 목사
- 주간식당 봉사 : 루디아전도회(7.31) 뱀뱀전도회(8.7)
- 금주의 식사 : 16교구 강석조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은마아파트 주민을 위해 열려 있는 서울교회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해 여전 불편함을 겪고 계신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교회는 식수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대로 오셔서 사용해 주시고 혹시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서울교회의 사랑과 기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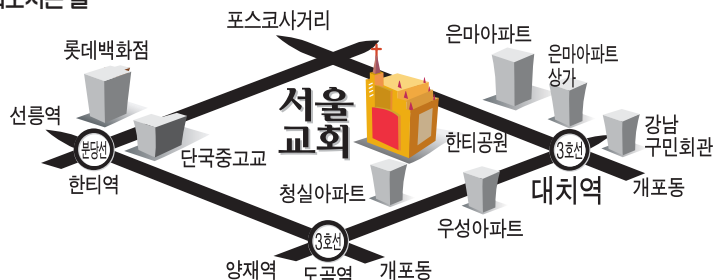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1. 8월 1일(월)-9일(화)까지 계속 되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을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2. 집중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3.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디아스포라부 수련회도 은혜 충만하도록

은혜 중에 진행된 교육 1국 여름 성경학교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